

지역 매 아 리

김제시, 제3차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12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전대식 부시장 주재로 전 부시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 대비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고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는 한편,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회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제시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신속집행 주간 집행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 부서별 1억이상 부진사업 관리, 선급 최대 집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긴급입찰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을 활용해 6월말까지 집행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전대식 부시장은 "6월 평가까지 매일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으로 정부 목표율 55.5%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은 "신속집행은 일자리 사업과 지역경제 성장 촉진 역할이 기대되므로 6월말까지 목표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양파 사주기 운동 적극

완주군이 양파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양파 대만 수출에 이어 농가의 판매촉진을 위해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이날 말까지 군청 및 유관기관 공무원, 완주군 소재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행사는 햇양파 과잉생산에 따른 관내 재배농가의 애로해결과 시장판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고령농가의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민과 행정의 신뢰도 높이고 있다.

판매가격은 10kg(개당300~400g) 1망에 4000원씩 산지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신청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 (290-3321)으로 하면 된다.

공급은 완주군양파연구회에서 자체 차량을 이용해 지정장소로 일괄 배달하고 있다.

한편, 올해 햇양파는 기후 및 재배환경 양호로 과잉 생산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산지가격이 최고 50%이상 폭락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접수

김제시,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김제시(박준배 시장)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부적합자, 확인조사 등으로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된 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시 신청접수를 시작하였다.

이는 생활수준은 최저생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높은 부양의무자의 기준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계층이 늘어감에 따라 김제시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양질의 삶에 한 걸음 다가서도록 돕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 및 조사과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부적합한 자에 대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아울러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재조사 등으로 중지된 자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종전 맞춤형복지(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령자는 제외되며,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서 재산은 950만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때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한다.

구명식 주민복지과장은 "생계급여는 정액급여로서 1인 가구 20만4840원, 4인 가구 41만5210원을 매월 지급하고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는 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 수혜를 받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는 우울 고위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추진

김제시보건소,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연중 진행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정신건강 취약군의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및 질환 상담, 독거노인 중 우울 고위험군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김제시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독거노인의 우울 문제 역시 지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거노인의 평소 정신건강 관리 및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우울 고위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개선 및 일상생활 기술훈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분기별 가족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전문의 센터장 여성숙은 "요즘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정신건강 및 질환에 대해 바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빠른 진단과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널리 홍보되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정신건강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노인우울 고위험군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방문 정신건강 상담, 가족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 희망자는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63-542-1350)로 문의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임도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전북도 2019 평가서 환경친화임도 역량 인정받아

완주군이 2019 임도사업(작업임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2019 임도사업 자체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환경친화적 임도사업의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8년도 시행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안전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서류 심사와 산림전문가, 설계시

공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의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평가결과 완주군은 자연경관 보전에 역점을 두고 현지여건에 맞는 재해방지 안전공법을 적용해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설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으로 군은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인센티브까지 확보했다. 완주군은 임도개설을 통해 오지마을을 이어주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산주들의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산발 발생시 비상용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 임도개설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65개노선 138.7km에 달하는 임도가 개설됐다.

특히, 2019년도 간선임도 사업에서는 상관면 의안리 수원지 일원을 중심으로 4.5km 구간에 대해 수변길 걷기와 산악자전거가 가능한 휴양 레포츠 기능을 갖춘 테마임도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실시계획을 마쳤으며, 조만간 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

김제시, 시정모니터 초청 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제시 시정모니터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제시 시정모니터는 김제도약산책 SNS 홍보, KTX 김제역 정차운행 촉구 캠페인 등 과제수행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시민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김제시 시정모니터와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정모니터는 활발하게 김제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였으며 특히 김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그간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의사소통 방식에서 벗

터가 사명감을 가지고 민의를 대변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제시 시정모니터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완주군, '챌린지 100C' 정책 디자인 스쿨 워크숍 개최

완주군의 젊은 공무원들이 주민중심의 정책 설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완주군은 13일 고산 휴양림에서 5년 이내 신규 직원 위주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 '챌린지 100C'의 정책 디자인 스쿨 워크숍을 가졌다.

완주군과 희망제작소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정책 디자인 스쿨'은 주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8월까지 두 차례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송창석 평택시 정책특별보좌관, 김산 소설픽션 전문가, 서승교 IBM 이사 등 전문가 3명이 강사로 초빙돼 주민 시점에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이슈를 발견하는 방법과 주민과의 협업 방법론에 대해 교

육했다.

세부적으로 △사례로 보는 주민중심 정책디자인 △역지사지 소설픽션 △공무원이 간다, 주민이 온다 등의 워크숍을 통해 주민중심의 정책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과의 협업 방법에 대해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완주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 현안사업들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신규 공직자들의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모든 정책은 주민과의 소통, 참여, 협력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완주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주민과의 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